

전남 서부권

이상저온에 알맹이 없는 '우리밀'

해남·함평 이삭 패지 않는 백수피해 심각... 재배 농가들 울상

전남도 9일까지 정밀조사

본격적인 우리밀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함평과 해남 등 우리밀 재배 농민들이 이상저온으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해 울상을 짓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하순 밀이삭이 생기는 시기에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저온이 발생하면서 이삭이 패도 알맹이가 없는 불일 상태의 '백수현상'이 나타났다.

>냉해로 밀 이삭이 패도 알맹이가 없어 = 학교면과 압이면, 대동면 등 우리밀 재배단지에서 백수현상과 붉은 곰팡이병이 대량발견돼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함평지역에서

는 현재 380ha(230여 농가)에서 우리 밀이 재배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삭이 생기는 지난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이상기온으로 기온이 내려간데다 출수와 유숙기인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잦은 비로 인해 알맹이가 없는 백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보리수매 폐지와 자금지급 대안으로 우리밀 재배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리 수확기보다 수확이 늦어 2모작 벼농사에 어려움이 있고 이삭이후로 수확이 떨어지는 등 농가소득이 낮아 우리밀 재배면적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와 같이 이상저온 현상

으로 밀수확이 크게 떨어져 농가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정부차원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밀 재배 농가들의 기피현상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밀 재배농가 박모(압다면)씨는 "수확할 밀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올해 밀농사를 망쳤다"며 "이상저온 현상으로 우리밀 재배농가의 피해가 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남군 송지면 정정파 회장만 한이외 우리밀 재배단지 역시 백수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군은 2012년 보리수매 폐지를 앞두고 보리 대체 품목으로 우리밀 재배



확대에 나서 올해 1700여농가가 3260ha를 심었으며 ㈜밀다원과 생협 등에 전량 납품된다.

>저온피해 밀 재배로 인정 = 전남도는 이상기온에 따라 냉해를 입은 국산 밀도 재배로 인정돼 피해농가에 대한 영농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오는 9일까지 밀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농가별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생계지원,

영농자금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국산밀 저온피해의 원인을 정밀 분석해 재배피해로 인정해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것이 반영됐다"며 "피해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밀 조사를 실시해 농가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하·박희석기자 hwang@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 변경

8월까지 평일 2회·주말 3회 다양한 영상 연출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 설치된 '춤추는 바다분수' 운영시간이 변경됐다. 목포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춤추는 바다분수'를 ▲평일 저녁 2회(밤 9시, 9시 40분) ▲주말 3회(9시, 9시 40분, 10시 20분) 운영한다.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는 매일(월요일 제외) 여러 가지 장르의 연출을 약과 함께 레이저 공연을 병행하는 등 다채롭게 구성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공연 횟수가 줄었는데도 지난해까지 8만5000여명의 관광객이 분수를 찾았다. 특히 목포시는 '춤추는 바다분수' 홈페이지(seaountain.mokpo.go.kr)를 통해 시민들의 기법일과 프리포즈 등의 사연을 접수 받아 신청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자막을 이용해 연출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6~8월은 축제와 바캉스 시즌을 맞아 '해설이 있는

목포' 코너를 마련, 관광객에게 목포 알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청탁안하기 민·관 캠페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최근 '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로 지정된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일원에서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사회,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알선 청탁안하기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지역주민들의 인화단결을 통해 신뢰받고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무안 세발나물 틈새 소득작물로

지난해 20여농가 180t 생산 4억원 소득

바닷가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염생(鹽生)식물인 '세발나물'이 무안지역 틈새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3여 농가를 대상으로 운남면 세발나물 작목반을 구성해 비가립 하우스 재배단지 2ha를 조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20여 농가가 재배면적을 3ha로 확대, 세발나물 180t을 생산해 4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저온기에 녹색 나물을 찾기 어려운 시기를 이용, 세발나물을 재배·공급 출하함으로써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웰빙 채소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발나물은 비타민 C와 엽록소, 식이섬유 등 기호성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성인병을 예방하는 각종 기능성 성분을 함유,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 무안군 세발나물 작목반은 지난 2월 고품질 세발나물 재배와 마케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남 세발나물 영농조합법인으로 재정비했다.

운남 세발나물영농조합법인 서준일 대표는 "그동안 파종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재배 생력과 밭 상품화를 위한 진압 롤러, 포장개선 등 지원과 지도를 통해 세발나물이 지역 명품 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농번기 부족한 일손돕기 '농촌사랑' 실천

농협 완도군지부

농협 완도군지부(지부장 강남경)와 완도농협(조합장 정남선)은 지난 1일 고금면 가교리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농촌사랑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협 임직원 30여명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모란 3000개를 설치했다.

농협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영농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종 지원활동을 연중 병행할 계획이다.



강남경 완도군 지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에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직원들이 나서게 됐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촌사랑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오늘 현충일 집집마다 태극기 물결

함평 거승리위락 아파트 자치회 국기달기 운동

함평읍 거승리위락 아파트 자치회(회장 문성수·이장 윤귀숙)가 6일 현충일을 맞아 아파트 전세대에 태극기를 나눠주고 국기달기 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연휴 계획이 잡힌 아파트 주민들 역시 전날인 5일 태극기를 게첨하는 등 현충일 국기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윤귀숙 이장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한 선열의 고귀한 정



신을 기르기 위해 현충일 국기달기 운동을 계획했다"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국경일마다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하기자 hwang@

전 북

“군산·김제·부안 갈등 부른 새만금 행정구역

일제 강점기 이전 역사성 반영돼야”

자치행정학회 토론회

바다를 매워 생긴 새만금간척지(4만100ha)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한국자치행정학회 주최로 지난 2일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렸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를 군산시 관할로 한다'는 행안부 고시(2010년 11월)에 반발해 "일제 강점기 그어진 해상경계선으로 새만금 일부를 군산시 가 맞는 결정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방안을 놓고 3개 시·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부 패널이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역사성'을 반영

해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법중 우석대 교수는 "1896년까지 만경현(현 김제)과 부안현(현 부안)의 관할이던 고군산군도(현 새만금 일대)가 일제 강점기에 군산으로 편입됐다"며 "이는 일제가 전통적 행정체계를 전통관념, 생활권을 무시한 조치로 불합리하고 조선의 전통을 파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행정구역은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적 개편 이전에 중시됐던 '역사성'을 기본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복원하는 일은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찾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원일 군산대 교수도 "오늘날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은 전통적

인 문화·생활·역사·지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제가 호남곡창지대 수탈을 위해 만든 것이다.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해 새만금 매립지를 분할하면 지자체 관계에 형평성을 해치고 주민 갈등을 고조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행정구역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강릉기 서남대 교수는 "새만금시(市)를 도 또는 중앙 직할로 운영한 뒤 특별법을 통해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김희곤 우석대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개발적이고 협력적인 자세와 함께 대화, 정보 교류 등을 통한 공공확산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새만금 경제청 中 빈해신구와 우호 협약

공동 투자유치 등 기업 교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새만금경제청)이 중국의 3대 경제특구 중 한 곳인 텐진의 빈해신구(濱海新區)와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경제청 방문중인 새만금경제청의 이명호 청장은 지난 3일 텐진시에서 빈해신구 청장과 함께 빈해신구의 3개 기능구(텐진항.개발구.동강보세구)중 하나인 동강보세구와 새만금 개발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양 특구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며, 입주 기업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 청장은 "양국의 국책사업을 추

진하는 새만금경제청과 빈해신구가 우호협력을 체결함으로써 두 지역이 동아시아 경제.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텐진시에 있는 빈해신구는 상하이와 선전을 포함한 중국 3대 경제특구 중 하나로 최근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곳이다.

새만금경제청 관계자는 "산업과 강보세구)중 하나인 동강보세구와 새만금 개발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양 특구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며, 입주 기업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 청장은 "양국의 국책사업을 추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익산시 6곳 운영

'국대 제1호 여성 친화도시'인 익산시 가 올해 아토피와 천식이 없는 안심학교와 안심 어린이집 6곳을 운영한다. 올해 안심학교와 안심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은 맑은샘 어린이집과 전서초등학교, 전서초 병설유치원, 동남초등학교와 이 학교 병설유치원이다.

안심학교에서는 아토피와 천식 유병률 조사를 위한 고위험 아동에 대한 전문의 치료와 알레르기 검사, 정기적인 교육 등이 진행된다.

또 이곳에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건교육이 시행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뉴스 브리핑

저수지·하천에 어린 참게 15만 마리 방류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장장 박규석)은 오는 8~9일 도내 저수지와 하천에 1cm 크기의 어린 참게 15만 마리를 방류한다. 방류장소는 정읍 오성제를 비롯해 진안 용담호, 고창 석남제, 부안 운호제, 익산 왕궁제, 산북천 등지이다.

민물고기 시험장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0만 마리의 어린 참게를 만경강 등지에 방류했다"며 "이번 방류로 2년 후 1억8000만원 정도의 농·어업인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컨테이너 터미널 전대로 40%로 조정

군산컨테이너 터미널(GCT)이 해마다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에 내는 전대료가 올해는 40%로 조정됐다. 군산컨테이너 터미널은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당초 감면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꾼 군산 컨테이너부두

의 전대료를 40%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감면을 50%에서 다소 낮은 비율이지만, 감면 기간을 계속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 40~50대 시니어들에 일자리 제공

정읍시는 조기에 퇴직해 재취업이나 전직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 40~50대 시니어들에게 대한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시는 소요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시니어 채용희망 기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시니어 신규채용업체에는 3개월 동안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60만원씩 3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희망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와 필요인력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구직자를 선정하여 해당 기업에서 적인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parks@

순창, 건강장수 체험관 건립 국비 10억 확보

순창군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건강장수 체험 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과학관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자해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내 2000㎡의 부지에 800㎡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건립된다.

과학관 내에는 전시공간, 영상관, 체험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주 풍남문 주변 확트인다

15억 들여 구 대건신협 등 철거 후 광장 조성

전주시는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말까지 보물 제308호인 '풍남문'을 가리는 주변의 구 대건신협과 구 성모병원 건물 등 2개 동을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한다.

이 건물은 부지 2045㎡에 4층 높이를 한옥마을과 풍남문 사이에 있어 풍남문의 조망권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주시는 이 건물을 연밭까지 철거하고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소규모 광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 편입건물 매입과 세입상가 보상 등을 완료했다.

풍남문 조망권 확보사업은 시가 풍남문을 가로막고 있는 주변 건축물을 매입·철거, 경관광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조망공간을 확보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동선을 인접한 남부시장까지 연계시켜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는 철거건물 부지에 전통미

와 현대적 디자인 감각을 결합한 경관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에도 착수했다.

시는 당초 이 철거부지에 중대형 버스를 포함한 차량 61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남부시장 등 주변에 주차장이 새로 조성됨에 따라 전통문화 가치 보전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풍남문~팔달로 교차로간 도로 50m의 폭을 기존 왕복 2차로(폭 15m)에서 인도가 포함되는 왕복 4차(폭 22m)로 확장하는 공사도 함께 추진해 풍남문 관림과 남부시장 이용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북원계획 중인 전라감영 및 객사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루트가 형성돼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